

생산적 금융·반도체 훈풍... 부동산 쓸림 자금, 증시로 재배치

투자자금 이동 본격화

부동산 편중 완화에 자금흐름 변화
반도체 호황 타고 국내 증시 강세

예적금 이탈분, 대기성 자금 전환
M2 늘며 증시 주변자금도 확대

위험자산 선호에 신용대출 증가
분산·절세 전략 병행 등 필요

국내 금융시장의 자금흐름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운용주기가 긴 예·적금에 묶였던 자금은 투자를 위한 대기성 자금으로 이동했고, 부동산에 집중됐던 투자자금도 증시로 옮겨가고 있다. 부동산에 집중된 자산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배치하려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세계적인 반도체 호황에 따른 국내 증시의 급상승이 맞물린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이달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지난 3월 광의통화(M2) 평균은 4132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전월과 비교해선 0.4% 늘었고,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해선 5.6% 늘었다. 3월을 기준으로 코로나19 유행이 끝나가던 지난 2023년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광의통화(M2)'는 시중에 유통되는 자금을 말한다. 수시입출금통장이나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입금된 돈, 만기 2년 미만의 예·적금, 수익증권 등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이 광의통화에 해당한다. 시중에 풀린 돈이 많아지면 경기가 활성화되며, 주식을 비롯한 투자상품 가격도 상승한다. 은행에 돈을 장기간 묶어두기보다,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머니무브'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국 경제 투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구 부총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과거의 단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 '생산적 금융'과 '반도체 호황'

정부는 작년 9월 차세대 금융 정책 방향으로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제시했다. 부동산 등 생산성이 낮은 분야에 쏠린 자금을 실물 경제로 재배치한다는 목표다.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과 함께 금융권의 자금이 이동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이 강화됐으며, 기업들도 주주환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생산적금융'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를 일부 해소한 가운데, 세계적인 반도체 시장 호황은 국내 증시의 가파른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국내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 1년간 각각 500%와 1000%가 넘는 가격 상승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초 2400포인트 수준이었던 코스피지수는 최근 8000을 돌파해 9000을 넘보고 있다.

낮은 예·적금 수익률도 자금흐름이 변화한 이유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4월 한달 동안 국내 은행들이 취급한 정기예금의 금리 평균은 연 2.85%(1년만기 기준), 적금금리 평균은 2.72%(1년만기, 단리 기준)에 불과했다. 예·적금의 기대 수익률이 낮은 만큼, 투자자들은 자금을 묶어두기보다는 위험자산 투자를 늘리

고 있다.

'자금흐름'이 바뀌면서 자금은 국내 증시로 몰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대기자금에 해당하는 투자자예탁금은 올해 초 89조원에서 최근 130조원을 넘겼고, 증권사의 파킹통장'에 해당하는 CM A도 16조원 넘게 늘었다. '빚투' 수요도 늘면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대출) 사용 잔액은 41조원을 넘겼다.

◆ 위험 분산·절세 등 '똑똑한 투자'

전문가들은 저금리·저성장 국면에서 자산증식을 위한 위험자산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위험분산'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위험자산은 언제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자산규모나 수입, 노후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연금저축·개인형IRP 등 절세통장을 활용한 '절

세 전략'도 중요하다. 금융상품을 운용해 발생하는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만큼, 절세는 곧 이익 확대로 이어진다.

ISA는 다양한 투자상품을 한 계좌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금융 상품이다. 기본형을 기준으로 만기 시 200만원의 투자소득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절세혜택을 강화한 청년형ISA와 국민성장ISA도 6월 중 출시된다. 기존 ISA 대비 납입한도와 세제혜택을 강화했으며, 기존 ISA와 중복 가입도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개인형IRP는 두 상품을 합쳐 연 900만원의 납입액까지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두 상품을 30년간 운용하면 최대 4000만원이 넘는 환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단, 연금저축과 개인형IRP는 주식에는 직접 투자할 수 없으며 펀드·리츠·예금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안성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양도세 부담에 매물 잠기고 공급난 속 전월세 부담 커져

불안한 부동산 시장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전역 확산
전셋값 상승폭 10년여 만에 최고
월세 전환 늘며 임대료 압박 확대

부동산 시장이 매매와 전세, 월세 모두 들쭉거리면서 불안해지고 있다. 집값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나면서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고, 전·월세는 공급 부족과 전세의 월세화로 상승폭이 가팔라졌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18일 기준 1.12%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마이너스(-)에서 상승세로 전환한 것은 물론 상승폭도 크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2.11% 올랐고, 서울은 상승률이 3.42%에 달한다. 다주택자 매물로 주춤했던 집값은 중과 유예가 끝나자마자 서울 전역이 올랐다.

임대차 시장은 공급부족 여파가 더 컸다.

올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18일 기준 1.78% 올라 매매가격 상승률을 앞질렀다. 수도권이 2.6%, 서울이 3.2% 상승했다. 특히 이달 셋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29% 올라 지난 2015년 11월(0.31%) 이후 10년 5개월여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팔면 양도세, 보유하면 보유비용이라는 구조가 강화되면서 다주택자는 단기 매도보다 보유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세 부담과 보유비용이 임대료 인상 압력으로 전가될 수 있으며, 실제 임대차 시장에서는 이미 전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이 동시에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물량 부족 우려에 전세수급지수는 5년여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KB부동산 관계자는 "절대적인 공급물량이 부족한 가운데 신규 입주물량 감소와 월세 전환 증가 등으로 전세물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며 "공급 부족이 심화하면서 전세수급지수는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도 2021년 이후 최고치"라고 설명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일반가구 6680가구와 중개업소 233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주택시장 경기 인식'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0% 이상이 올해 전세시장이 상승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성진 기자 smahm@metro



metro

PLUX

Cool한 여름준비

당신의 모든 공간을 시원하게

5/27 - 5/31

롯데하이마트가 만든 일상가전 PLUX

PLUX 여름 가전 컬렉션으로 완벽한 여름을 준비하세요

부드러운 바람, 간편한 관리

인버터 스탠드 에어컨

1,370,000원

강력 제습, 넓은 공간 보송하게

18L 대용량 제습기

299,000원



인버터 룸 에어컨 (18.7m²)

599,000원



Easy 라이트 실링팬

389,000원



초경량 BLDC 핸드형 선풍기

9,900원



35cm 초미풍 선풍기

44,900원

플렉스는 전국 롯데하이마트 매장과 온라인몰에서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가전이 쉬워지는 곳 LOTTE HIMART